

광주시, 고독사 없는 돌봄도시 만든다

최근 5년간 551명 고독사 매년 증가 빅데이터 분석 위험군 선제적 발굴 빛고을50+센터 통해 취업·상담 지원

광주시가 고독사 없는 따뜻한 돌봄도시 만들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고독사 위험 군을 사전에 발굴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선제조치로 고독사 제로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간 광주시에서 고독사로 숨진 사망자는 총 551명으로 매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독사로 숨졌다. 2017년 105명이었던 광주지역 고독사 사망자 수가 104명(2018년)→113명(2019년)→118명(2020년)→111명(2021년)으로 매년 꾸준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국에 비해 연평균 증가율이 1.4명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인원은 2021년을 기준으로 평균 7.7명으로 전국평균(6.6명)보다 높았다.

또 광주지역 연령별 인구비중은 40대에서 50대가 전체인구의 33%로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전국 3위를 기록해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광주지역 세대 당 인구수는 2.2명(광주시 전체인구 143만8868명, 총 세대 수는 64만5712세대)이지만 1인 가구 비율이 34.5%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고독사 없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세웠다.

먼저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인한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 위험군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고독사 실태 조사를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위기가구 발굴체계에 우체국 등 가우편 시스템을 더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확장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광주지역 고독사 발생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111명)는 주로 아파트(42명), 주택(39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세모녀 사건' 등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민주도형 민관협력 복지모델인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해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섰다.

광주지역 고독사 최초 발견인은 형제·자매(26건), 임대인(23건), 이웃주민(9건), 지인(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여기에 전입신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미혼모 가구, 조손 가정 등 전입가구 가정방문 복지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독사 사망자(111명)중 연령대는 32.4%(63명)가 50대, 27.9%(31명)가 60대를 차지했다. 70대는 9%(11명), 80대이상은 3%(4명)이었다는 점에서 단순 고령자위주의 대책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건강수준을 전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빛고을 50+센터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장년층 생애 재설계 상담 지원, 구직자 취업 지원,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지원, 창업상담 및 컨설팅, 커뮤니티 활동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고독사 위험 예방 대책을 진행해 고독사 없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애인생활체육 '광주 오방보치아대회' 개최

28일 북구 반다비복합체육센터... 17일까지 신청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대표 종목인 '보치아' 대회가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린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는광주시북구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광주 오방보치아대회'를 28일 광주시 북구 반다비복합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보치아'는 가족으로 된 골을 던지거나 굴러 표적구와의 거리를 비교해 점수를 매기는 컬링 종목과 비슷한 구기 스포츠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2개 팀까지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광주지역 장애인들로 팀은

2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다만 아마추어 대회라는 점에서 지난 2021~202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시 대표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대회 참여 희망시 17일까지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팩스(062-433-7783)나 이메일(obang1203@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대회 1등 팀에게는 상금 50만원, 2등은 상금 40만원, 3등에게는 상금 30만원, 4등은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062-433-7782)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취사자를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다도해국립공원, 15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 금지...흡연·셋길 출입시 과태료

여름 성수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방문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성수기 탐방객 집중에 따른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여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에는 국립공원 내 상습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에 집중 단속 구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단속은 오는 15일까지 이뤄진다.

집중단속 구역으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거문·백도지구, 금오도지구, 나로도지구, 팔영산지구, 갯바위휴식제구간,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등)와 해수욕장 및 갯바위 등이다.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나 야영은 금지되며 흡연, 셋길 출입시에도 자연공원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된 고흥 금산면 거금도의 적대봉 및 특정도서 등에도 계도와

단속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시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흡연시에도 1차 60만원으로 벌금이 대폭 늘어났다.

오장영 다도해해상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영산강청, 광주·전남 녹색산업 육성 협의체 구성

8개 민·관 단체 참여...에코스타트업·스마트공장 등 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청)이 광주·전남의 기존 산업현장을 친환경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영산강청은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 광주시, 전남도, 김대중컨설팅센터,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전라남도환경산업협회, 한국곡기산업진흥회 등 총 8개의 민·관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최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체는 광주·전남 녹색산업 현황을 파악해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기업

에 적극 홍보하고 해당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녹색산업은 경제 활동 전반에 이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체는 광주·전남 녹색산업을 실천하는 중소기업 2473개소를 분류해 선정했으며 지난해 기준 1351개 기업에 대해 3182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은 녹색산업 사업화, 일자리안정자금, 에코

스타트업,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중소기업 성장 컨설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다양하다.

올해는 '녹색산업-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금융과 수출, 창업 등의 영역에서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녹색산업 분야 기업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다음달 6-8일에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설팅센터에서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을 개최해 기업들에게 녹색산업 전문전시회와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홍보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청이 광주와 전남지역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지역 내 녹색산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커튼'으로 햇빛 가리고 온도 낮춰요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화염탐방소에 조성... 프로그램 운영도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화염탐방안내소 외부에 그린커튼을 조성해 자연친화적 휴식공간과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 그린커튼은 화염탐방안내소 외부 기능사 공간 수세미, 여주 등 일년생 덩굴식물이 꾸며 커튼 형태로 녹화하는 기법을 말한다. 여름철 강한 햇빛을 가려 그늘을 조성하며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린커튼을 이용한 탄소중립 환경교육도 이뤄진

다. 전남사무소는 '덩굴식물 만나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린커튼으로 조성된 휴(休)공간 포토존에서 휴식을 즐기거나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사진은 화염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인화할 수 있다.

또 전남사무소는 가을철 그린커튼에서 수확한 열매를 활용해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겨울에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여주차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함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